

사순 제 3 주 일

기도서 P. 259

- 제1독서(출애 20, 1-17)
- 제2독서(고린전 1, 22-25)
- 복음(요한 2, 13-25)

숲 정 이

발행권 원주교천주교구
편집사 사 목 국
인쇄 판 리 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④ 3201

강론



설마가 사람잡지

안 용 기 신부

봄이 오면 그동안 춥고 어서퍼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보코만 있던 오물들을 치우며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다. 허물어진 하수구도 고치고 손쉬운 곳에 던져버렸던 연탄재도 치우며 깨끗하게 돌아오는 새순을 다질새라 끌어버린 정원에 손질을 가하며 보장없는 울타리도 치워 본다. 누구나 한번쯤은 실시하는 대청소다.

교회 전례도 부활을 준비하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전 대청소 작업상황을 자상하게 들려주고 있다.

매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하시면서 비유나 들려주고 여유있게 언행하시던 주님도 이런 극도에 이르는 면이 있었구나 하고 새삼 놀라게 된다.

허구한 날 용서만 하시다가 12군단도 넘는 군대(天使)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작전한번 세우지 않고 죽어간 주님에게 노한 모습으로 책적을 만들어도 설마하고 태연했을 법도 하다.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양과 소를 후려갈기고 환금상의 돈을 쏟아 버리며 상을 둘러 앉으신 다음에야 "내 아버지 집을..." 하실 줄이야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는가? 청천벽력임에 틀림없다.

왜 그랬을까? 성전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이처럼 노발대발 하셨을까? 그것은 성전이 곧 야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는 야훼께서 계시는 계약의 폐를 모시는 지성소나 성전을 절대시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절대시한 성전이 인간적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제는 인간을 오염시키고 죽이는 것이 바로 성전 파괴요, 임마누엘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행위만은 추호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은 성전 파괴, 곧 임마누엘의 파괴가 너무도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실례를 구약에서 체험했다. 사실 에벤의 성전을 파괴한 원죄가 없었던들 형제간의 살인극도, 소돔과 고모라의 비운도, 노아 홍수도 없었을 것이며 민족의 분열을 초래한 바벨의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 파괴된 임마누엘을 실존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생명을 다했다. 이러한 주님께서 인간의 오염을 묵인할리가 없다.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의 현존화와 생활화를 위한 사순시기에 살고 있다. 설마 이 젊고 건강하고 시절좋은 나에게야 하며 미루지 말고 인간 성전 대청소에 앞장서서 회심하자. "설마가 사람잡지" 하는 소리는 우리 모두가 한 두번 들은 말이 아니다. 체적으로 얻어맞은 후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한번쯤 깨어 기도하며 회심하자.



한 권의 책을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쓰고 남은 여분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자기의 뉘를 메어서 나누는 것은 더욱 값지다. 오지리 부인들은 사순절에 「지금 세계 어디엔가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식당에 써붙여 놓고 그것을 묵상하며 먹을 것의 일부를 메어서 모은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정성들의 따뜻함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고 있다. 오지리 부인회 장학금이 그 하나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많다. 격리된 교도소 안에서 자유를 기도하는 양심수인들, 깃이겨진 몸뚱이로 싸늘한 눈총을 받아내는 나환자들, 뚜렷한 일자리조차 없어 한 잔의 막걸리로 배고픔을 달랠야 하는 막벌이꾼들, 죽을 앞에서 울어줄 자손마저 없는 노인비들, 풍지박산이 된 가정 때문에 가슴을 쥐어뜯어야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안식처가 없어 방황하는 우리의 형제, 오늘의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맘먹어 본 적이 있는가?

이 3월은 노동과 근로자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는 달이다. 교회의 전례력으로는 요셉성월이고, 사회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기념한다. 근로자들의 처지에 대해서 관심있게 살펴보자. 혹시라도 집에 사람을 데리고 있다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자.

외로운 해안초소에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도 기억하자. 그들이 쉬는 때에 입을 수 있게 한 권의 책이라도 모아보자. 군중사제의 애달픈 호소에 귀를 막지 말자.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뜻있게 보낼 수 있는 사랑의 한 모습이다.

숲 정 이 산책

2권 5백여명 관람

정의 평화를 위한 교회의 소리

다음은 2월 26일자로 발표된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세가지 결의문의 요약이다.

1. 양심법의 석방을 위한 결의문

새로운 정치체제가 그 자체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갖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구 체제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새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파생된 모든 문제, 특히 양심법의 문제를 국민화합의 방향에서 처리하는 것이 선결요건이 된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현재 재판에 계류돼 있거나 형이 확정된 양심법(광주 사태, 김 대중 사건, 인혁당 관계 인사들 및 학생, 근로자 등)들에 대해 석방, 재심, 기회의 물론 최대한의 관용으로, 진정 정치적 탄압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확실히 함과 동시에 우국충정에 의한 비판자의 주장과 견해를 경청해 주기를 촉구한다.

2. 고문없는 사회를 위한 결의문

우리는 최근 수사당국이 가혹한 고문으로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토록 한 사실이 밝혀진 사례들을 보아 왔다. 고문은 그 자체가 범법행위일 뿐 아니라, 특히 양심법들에 대한 고문행위는 가혹한 정치보복이며, 비인도적, 반인간적 야만행위임을 규탄하고, 정부당국의 고문근절을 촉구하면서 고문으로 인한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청산하기를 바란다.

3. 이 규호 문교장관의 소론에 대한 우리의 견해

이 규호 문교장관의 발제 「교회와 이데올로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지식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어떻게 약용할 수 있으며, 또한 학문적, 도덕적으로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를 절감하게 됐다.

그는 교회의 사회정의와 인권에 대한 관심을 교회가 갖는 교정관념으로서의 이상으로 돌아불렸으나, 오히려 이 문교장관 자신이 속해 있거나 또는 그 이전의 권력이 요구하는 정치적 교정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그는 또 유토피아에의 환상이 현실비판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바, 반대로 교회는 그 환상에서가 아닌 독재와 부정부패의 깊은 함옥 속에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 본래의 모습을 찾자는 인간회복을 위한 복음의 당당한 소명의식에서였던 것이다. 그리고 사회정의에 대해서도 그는 오히려 국민내부의 분열과 매카시즘적 단정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문과 인권의 유린과 탄압이 주권국가 건설이라는 당위아래서는 정당하다는 등 허구의 논리와 발언을 서슴치 않은 작태 앞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일방적 통고 내지는 위압적 치사로 일관한 모호한 태도로 전 그리스도인들을 분노케 한 처사에 대해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천주교 선교 200주년 기도문

성자의 수난과 성령의 힘으로 만민을 살리시는 천주여 찬미받으소서. 주께서는 오묘한 섭리로 우리 선조들이 스스로 믿음을 찾아 얻고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용맹히 진리를 증거케 하시어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더욱 밝히셨나이다.

주여, 선교 200주년을 맞이하여 당신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간절히 비오니 성령의 불길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선열들을 본받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신비를 깊이 살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 속에 하나되게 하소서. 복음을 즐기 차게 전하여 구원의 은총이 샘솟고 구원의 빛이 북녘 어두움도 비추게 하소서.

주여, 우리 모두 이 세대에 진리를 위해 몸바치게 하시며 형제적 사랑과 복음적 청빈 속에 가난하고 약한 이들과 함께 있는 교회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북자들로 하여금 시성의 영광을 입어 만방에 빛나게 하시며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가 온 누리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200주년 주교위원회 감축)

성 요셉과 노동

3월은 교회에서 성요셉을 특별히 공경하는 달이다. 그분은 노동자의 모범이시고 가난한 이의 빛이며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의 위로자이시다. 성요셉은 나자렛의 겸손한 목수로서 모든 노동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며 자신을 형성해 간다. 그래서 노동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도리어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

성요셉은 숨은 노동으로써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였고 끊임없는 창조활동에 자신을 투사시킨 성인이다.

그분은 하늘에서 당신의 기도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은총을 빌어주시는 것이다.

이 3월, 성요셉의 덕을 함께 기리고 특별히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 그분의 전구하십시오.

영 (축) 명

성요셉 대축일 (3월 19일)

김 종택, 안 복진, 배 영근, 유 장훈, 정 승현, 나 궁렬, 김 순태, 조 정오, 장 덕행, 서 광석 신부님 요셉 신부님들께 함께 축하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생산사원 모집

당사는 서울 소재 수출품 봉제완구(인형) 제조회사로 생산사원을 모집코자 하오니 뜻이 있는 분은 아래 장소로 연락 바랍니다.

모집인원: 여자 ○○명
자 격: 18세 이상 여성이로 무경력자도 가능
전주 연락처: 전주 전화 ② 2 8 3 6 회관수(시문)
※ 기술사 전원 수용하며 야간학교 취학이 가능함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 619

여광물산주식회사

전화 854-6881~3 이사 최열식(바오로)

□ 신장개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 중앙로1가 경찰서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② 2 5 1 3

한 철 재(비오)

주단·포복(훈수·희갑옷 감)도매상
각종 솜, 이불(밍크)카펫지 도매상

서울주단

전화 ③ 0 4 5 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ECCLESIA

□ 대야, 수류본당에 전교수녀님 부임

새봄과 함께 대야, 수류본당에 전교수녀님들이 부임했다. 대야본당설청 25주년을 맞이하여 본당의 숙원사업인 전교수녀님(성모성심회) 2명(윤리오바, 김 도미니카)이 3월 1일자로 부임했으며, 수류본당에서도 본당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동 전교수녀님 2명(박 보나벤투라, 엄 율리아)이 오게 되었다. 수녀님들의 부임을 축하하면서 두 본당이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전교활동이 전개되리라 믿으며 기대해 본다.

□ 전동 본당에 청년피정 실시

금년 본당 공동체의 해를 맞이하여 전동본당에서는 지난 3월 6일 하루 가톨릭센터에서 청년들의 피정을 처음 시도했다고 한다.

성체조배, 강론, 십자가의 길, 그룹 대화 등 다채로운 진행과 아가페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로서 짧은 시간이나마 그들 내적쇄신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전동본당 젊은 이들의 관심에 함께 감사하면서 보다 풍부한 결실을 바란다.

□ 상관본당 강당 신축

상관본당에서는 지난 3월 7일자로 교구장 직무대행님을 모시고 강당 신축 기공식을 갖었다. 지금까지 사제관과 사무실을 교리반, 회합실로 대체하여 갖가지 곤란을 겪었던 바, 이에 강당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작년부터 한푼 두푼 모아 강당 신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오늘도 상관 본당 신자들은 자신들의 봉사로 강당 신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40명 남짓하는 이 강당이 신자들의 형제애와 어린이들 신심의 거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교구 사무직원 발령

교구의 보다 효율적인 선교활동과 사무관리를 위해 사무국 이 주철(야고보)씨가 3월 8일자 가톨릭센터로 전보되고 그 후임으로 전 대학생 연합회 회장직을 맡았던 김 원(보스프)씨가 신규 발령 됐다.

김 원씨는 앞으로 교구 역촌(단체) 지도주임과 사무국 제 사무담당 겸 「윤정이」 기자로서 특별히 활동케 될 것이다.

많은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 바란다.

□ 농촌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당 공동체의 해를 맞이하여 농민회의 움직임은 바쁘기만 하다.

금년들어 지역 공동체를 다지는 본당 단위의 교육이 20여회 실시 되었고, 공소단위의 활성화를 위한 공소지도자 연수회가 1차에 이어 2차(4,5,6,7 지구)에는 30명의 공소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

농민회에서는 현장단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회, 이사회, 연석회의 등으로 그리스도 안에 농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새로 선출된 임원들의 다짐과 결의속에서 예년보다 더욱 활기찬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보려는 농민회원들의 활동이 각 공소에 전개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농촌사회에 이루어 지도록 우리 모두 참여하고 실천하여 농촌 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자.



(SS) FASHION
三星物産
 신사복·영국모드
버킹검
 간이복·성인용·아동용
 주니어
위크엔드
 세계적인 코트의 명문
런던포그
전주 특약점
 (주) 유율리안나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 4451

가나약국을 아래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가나약국
 (구 명보약국)
 약사 황의옥(파로)
 전화 ㉠ 5652
 전주 중앙동3가 73-1

풍남백화점 □ 전주안과 □
 가나약국 □ 우체국 □
 시청 □

전장을 드리는 회소식!!
 ㉠土龍(진액·감혈·분말)
 ※ 종래의 토룡탕보다 농도와 효능이 탁월함
 「엘베리도 수도원 제조」
토룡센타(전복총판)
 전주 성모병원 3층 303호
 전화 ㉠ 5587번
 황수산나

금·은·보석·시계
일성당
 정음 중앙동
 제일아케이트 내
 전화 6429
 송베드로(판공)
 남베로리카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교구 교육위원회: 16일 오후 2시(교구청 회의실)
2. 가톨릭 약사회 정기총회: 일시-3월 20일(오후 3시) 센타 다방에서 회의내용-82년도 사업계획
3. 교리 교사 5지구 연합회 모임: 3월 21일(일) 오후 2시 남원분당에서 있습니다
4. 대학생 합창단 제 2기 단원모집: 접수일-매주 <월> 오후 4시~6시, 장소-가톨릭 학생회관(전북대 앞)
5. 81년도 분당 유지비 결산서: 제출하지 않은 분당(고창·덕진·금마·장수)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훈
사도 회장 박광문

1. 가정의 날: 3월 19일 성요셉 대축일 10시 30분 미사, 저녁미사후 강연 주제-성과 사랑의 조화
 2. 불판공 성사: 면접 면담 일정(세대주에 한함), 23일(화)-진북동·인후동, 24일(수)-금암동·경원동·교사동, 25일(목)-중노총동·중,교·대학생, 26일(금)-태평1·2동·서노1·2동, 27일-학생 기타
 3. 성사일정: 30일(화)-진북동·인후동, 31일(수)-금암동·경원동·교사동, 4월 1일(목)-중노총동·중,교·대학생, 2일(금)-태평1·2동, 서노1·2동, 3일(토)-주일학생·기타, 4일(일)-공소간중리에서 3시
 4. 면담시간: 오후 3시~9시 30분까지, 성사시간-매일 미사후, 성사표 발행-3월 23일-면담후 성사보세요
 5. 꾸리아 월례회: 오후 2시 강당
 6. 고등학생 임시총회: 오늘 오전 9시 미사후,
 7. 주일학교 어린이 가정방문 3월 9일부터 하고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625,016원

- 반회장-이양근, 반지도자-천진, 18일(목)-태평동 8반 반회장-조순경, 반지도자-정진협, 20일(토)-진북동 1반 회장-이정례·김행자, 반지도자-안경례
7. 판공성사: 14일~21일(동 제한없이)
 8. 다음주 전례: 해설-독서-①김종근 ②신영미
- 지난주 봉헌금: 420,86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구

1. 반장님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모임: 오늘 오후 2시
 3. 애령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임원님·반장님 참석
 4. 올드래야 모임: 3월 19일(금) 저녁 7시 미사후
 5. 예비자 면담: 21일 오후 3~4시, 22일(월) 오후 7~9시(수녀원에서)
 6. 예비자 학교: 24일·25일 오후 7~9시(사제관에서)
 7. 가정방문: 기타반(16일)
 8. 공소판공: 광곡-3월 17일, 마음-18일(각 오후 3시)
 9. 사회양성 후원금 신입: 감사합니다
 10. 교리반 모임: 유치부-오정희, 1학년-유미정, 2학년-강혜진, 3학년-김도중, 4학년-최성림, 5학년-유용근, 6학년-조준, 이영철
 11.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이정민 ②신영창
- 지난주 봉헌금: 242,735원 교무금: 178,500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수녀들의 베소라성서 강의: 15일 오후 2시~4시
 2.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후
 3. 금주의 성경읽기: 마르코 복음 전체
 4. 신용조합 장학생 선발: 단 고등학교 재학생, 접수기간-3월 20일까지
 5.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6. 신우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후
 7. 예비자 교리 남자반·매주 목요일 저녁미사후
 8. 가정방문 일정: 중노2가-16일(화) 18일(목)-우아동, 17일(수)
 9. 노송성당 제12대 학생회: 회장-김형태,
 10. 전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11. 아파트 공소에 올겐 회사: 이일규씨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328,311원

(중흥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②9567 사도 회장 김수결

1. 성모회 월례회: 3월 21일 공식미사 후
 2.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매주 공식미사 후, 수요일 오후 2시, 밤 7시 30분
 3. 불 판공일정 안내: 전주 중흥이 계속, 3월 29일(월)-진북2동 3반, 3월 30일(화)-진북2동 1반, 4월 1일(목)-동양 APT, 4월 2일(금)-태평동
 4.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기호 독서-①이형일 ②김창영, 기도-강 삼
 5. 미사참례자 안내: 제6조-김정숙·신순영·김유리안·나·권춘자·문영희
- 지난주 봉헌금: 493,60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반석회 월례회의: 꼭 참석하세요
 2. 공소 판공성사 일정: 천당리-22일, 미산리-23일, 대동리-24일, 동산촌-25일
 3. 분당 판공성사일: 28일 저녁 7시, 공동 참회예절
 4. 예언자의 모후: 꾸리아 오후 2시, 각 프레스다음 간부님 꼭 참석하세요
 5. 주일학교 교리: 오후 2시 교리, 3시에 미사
 6. 치명자산 미사: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많은 참여를
- 지난주 봉헌금: 478,250원

(전동)

전화 주임 신부 김병업
사무 ⑥6208 사도 회장 박병준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자모회, 잠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화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꼬미시움: 다음주 오후 2시
 4. 미사시간 변경: 평일 아침미사 오전 5시 30분
 5. 부활전 9일기구: 치명자산미사 24일부터~오전 5시 30분(분당 아침미사 없음, 주일은 제외)
 6. 구역회합의 날: 3월 23일(화)-1부가 15장11~32절
 7. 중·고 신입생 환영회: 3월 14일 오후 2시 30분
 8. 중·고 임원회의: 신입생 환영회 후
 9. 글로리아 설기대 부활성가연습: 8일부터 저녁미사후
 10. 다음주 전례담당
 11. 아침미사: 해설-박중구, 독서-①이현재 ②김창선
공식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신일균 ②안득수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김동수 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586,50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오늘 저녁미사후
2.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후
3. 재경분과 위원회: 17일(수) 저녁 8시, 위원장-조영호, 위원-임종걸·강준희, 선교분과위원회-28일 저녁 8시, 위원장-박상기, 위원-이충원·김순희·김재식·이판기·김관수, 전례분과위원회-24(수) 저녁 8시, 위원장-유덕열, 위원-열규철·장현우·안철만·황단금·최정순·백중숙·김미경, 봉사분과위원회-31일(수) 저녁 8시, 위원장-장영담, 위원-양동석·이분진·전삼순·김복수·이용희·전정숙·박석순
4. 첫 영성체 교리: 15일부터 오후 5시
5. 차모회: 15일(월) 어머니미사 후
6. 가정방문 및 반회합: 15일(월)-태평동 5반 반회장-이정자, 반지도자-강기열, 16일(화)-태평동 7반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황희상

2. 전례분과위원회: 오늘 저녁 7시 30분 미사후
 1. 은퇴신부님들을 위해 기도와 봉헌 정성껏 하세요
 3. 십자가의 길 기도: 매 목요일 저녁미사 후
 4. 부녀분과위원회: 다음주일에 있습니다
 5. 분당 판공일: 3월 28일과 4월 4일, 준비하세요
 7. 불 판공일정: 3월 25일-돌목지, 4월 1일-두현리
- 지난주 봉헌금: 227,200원 교무금: 208,500원